

100세 인생설계

17.3.24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에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회자되면서 불어 닥친 조기정년퇴직바람이 아직도 생계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년층에게 안겨준 큰 충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무렵 우리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명제는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40년간 20여년이 늘어났으며 그 추세가 더욱 빨라져 얼마 안 있어 10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퇴직 후의 삶이 더욱 길어지며 그 삶은 적당히 살아도 될 만큼 짧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첨단기술의 발달로 180세 수명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미국의 어떤 조사에서 밝혔듯이 사람들은 분명 장수를 누리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바라던 바였으나 수명이 마냥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앙'이라고 지칭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문제와 맞물리면서 불거진 문제들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데서 국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생설계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때맞춰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펴낸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에서 이제 닥칠 초고령화시대를 예측하면서 인생을 전후기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자녀양육 등 먹고사는 문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이라면 후반부는 자기의 보람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가 또한 권유한 것은 50세 이후의 30~50년의 후기 삶을 위해 전반부의 삶에서 적어도 10년간은 자신을 위해 투자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노는 법도 익히고 함께 늙어갈 친구관계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한다. 그 관계를 최교수는 '행복 네트워크'라고 했다. 세계적 경영학 석학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젊었을 때부터 사회공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는 첩경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최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건네준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열 개의 열쇠'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① 유서를 미리 써보라 ②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 ③ 노는 법을 배워라 ④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⑤ 가족과 1:1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라 ⑥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⑦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라 ⑧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운동기술을 익혀라 ⑨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겨라 ⑩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등이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칫 의무와 책임에 매몰되어 자신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성찰하고 지평을 넓혀 남은 인생의 보람찬 '진짜 삶'을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사는 관문을 여는 열쇠들이다.

100세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무모하거나 황당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

90
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산 모델들이 줄지어 있는데서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내가 근래에 대면한 몇 분에게서도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 한 예는 3년 전 이화대학교 창립기념행사에서 104세의 동문을 만났을 때이다. 이 분은 우리가 아득한 역사 속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유관순열사의 일년 후배인 이화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였으며 그 연세에도 강건한 모습으로 3.1운동 동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마주앉아 유관순열사와의 활동을 어제 일처럼 낭랑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받은 감동은 지금도 새롭다. 또 하나의 예는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피터 드러커교수의 94세 된 부인인 도리스 드러커여사이다. 그 전 해에 작고한 남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한 것이다.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노부인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다섯 시간에 걸친 심포지엄에 참여하였다. 그것도 그녀에게는 외국어로 진행된 데다가 청중과 마주 앉은 쉽지 않은 자리였다. 그럼에도 행사 내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연설도 하고, 진행되는 내용도 경청하고 문답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참여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들 외에도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현역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주어진 생명의 어느 한 순간도 그저 시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적당히 시간을 죽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물론 남에게 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삶을 설계하였고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은퇴' 또는 '정년'은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찾아 변신하며 행복한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

90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거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사회분위기도 조성되어 있다. 퇴직 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은 다양하다. 특정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형, 재능과 관록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아 계속 일하는 형, 취미생활을 만끽하는 형, 자원봉사 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형 등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를 조합해서 사는 것이 지속가능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제2의 삶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신종업종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것은 자영업이 될 수도, 최근에 부상한 '사회적 기업'일 수도, 또는 시민사회운동이나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일 수도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들의 업종이 다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활력을 더하게 된다. 오늘의 주세가 행정이 축소일로에 있는 반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담지하고 있는 능력과 경륜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분출하고 있는 재앙들을 잠재우는 바로 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예측하고 예비하며 예상했던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가 바로 인생설계라고 생각한다. 바라기는 개개인의 100세 인생설계가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상생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견인한다면 고령사회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